돔베돈 제주흑돼지구이전문점
수제냉면쿠폰 육류고객 모두제공 도남청사점 755-0006 흑돼지거리점 753-0008

한라일보

대한민국 희망금융 신협
서민을 위한 저리 대출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2.05%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 기사제보(064)750-2214 | 구독(064)750-2333 | 광고(064)750-2828 | 2013년 6월 4일 화요일(음력 4월 26일) HALLAILBO 제7341호

禹 지사 연임 도전여부 '핫이슈'

제6회 지방선거 1년 앞으로… 梁 교육감 재도전 여부도 주목

제주특별자치도 3기, 민선 6기 선장과 도의원들을 뽑는 제6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와 제주정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2년 도의회 의원을 선출한 후 사라졌다가 지난 1995년 부활한 지방선거가 내년이면 19년의 역사를 맞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정치 민주주의 성년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만큼 성년시대 첫 민선단체장을 누가 맡을지,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8년이 지나면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관심은 현역 우근민 지사의 재도전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1991년 관선시대 두번의 도지사를 지낸 후 1998년 첫 민선 지사에 당선됐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 민주당 고희범 후보 등과 무소속으로 겨뤄 민선지사에만 세번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여기에 재선을 하고서도 2010년 당시 출마를 포기했던 김태환 전지사의 도전 여부, 그리고 후보군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과 김경택 전 JDC이사장 등 새누리당의 새로운 주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기존 고희범 도당위원장에 맞서 경선체제를 갖출 유력 후보가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김우남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고 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이밖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안철수 발 정계개편도 내년 지방선거의 이합집산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자치도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누가 제1당을 차지할지가 도민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새누리당이 제1당을 회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제1당 수성을 통해 차기 대권에 기반을 쌓을지 이번 지방선거가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강화된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제와 현역 도의원들이 얼마나 재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지방정가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감선거 역시 양성언 교육감의 재도전 여부가 선거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항마로 거론되는 양창식 전 탐라대총장의 재도전 여부, 그리고 이석문 교육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 등 10여명의 후보들이 얼마나 입지를 탄탄히 다졌는지에 따라 후보자 판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영석기자

교육의원 존폐·추자우도 분구 초미관심

도의원선거구획정위 첫 회의

내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될 획정위원회가 3일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8명 등 11명으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김승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성호 전 MBC 보도위원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주 화요일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총 정수와 비례대표의원 정수,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지역선거구 획정 등의 획정안 보고서를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4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가 주목되는 점은 교육의원 존폐 여부 때문이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상임위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상태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획정위에서 교육의원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지사나 도의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 증감이 예상되는 노형동과 기형적으로 획정된 아라·봉개·삼양선거구, 그리고 최소선거구인 안덕면 선거구 등 농어촌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여부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근민 지사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추자·우도지역 분구도 이번에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쟁점은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에 따라 추가로 5명의 일반도의원 정수가 확보될 경우 도의원 정수 41인 이내에서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FAO의 파비즈 코하칸(맨오른쪽)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과 세계농업유산 사무국의 메리 제인 델라크루스(오른쪽 두번째) 기술담당은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시 조천~신흥~김녕~하도 일대 밭담과 원담, 불턱, 방사탑 등을 둘러본 뒤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경민기자

FAO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자격 충분"

코하칸 의장 등 핵심관계자 제주밭담 답사 뒤 극찬
다섯가지 심의 영역 모두 충족 "독창성 탁월" 평가
지속 보전·전통 농업문화 발전위한 실천계획 주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핵심 관계자는 3일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며 다섯가지 영역(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FAO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밭담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FAO의 파비즈 코하칸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과 세계농업유산 사무국의 메리 제인 델라크루스 기술담당은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시 조천~신흥~김녕~하도 일대 밭담과 원담, 불턱, 방사탑, 제주컨벤션센터 등을 둘러보고 언론과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하칸 의장은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코하칸 의장은 밭담 답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액션플랜(실천계획)을 통해 산업화와 기계화 보다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통 농업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농업유산의 다섯가지 영역은 식량 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지식 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제도 문화습관, 경관이 수려한 토지 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밭담이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코하칸 의장은 "제주는 기회의 땅이자 아름다운 섬"이라며 특히 "제주밭담의 경관은 매우 흥미진진하며 이용(경작), 규모, 매우 독특한 풍광, 독창성 면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 FAO 관계자들의 제주 답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자치도, 제주 세계농업유산등재TF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도 동행했다.

FAO 관계자들은 이날 조천에서 제주 돌문화의 하나인 원담 멸치잡이 현장을 확인했으며, 김녕리에서는 쑥과 감귤을 경작중인 귀농 정착 농부와도 만나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하는 등 제주의 돌문화와 경작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6월 중·하순 많은 비… 7월 상순 무더위 예상

6월 중순과 하순 제주지방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다. 또 7월 상순에는 일시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날이 있겠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은 1개월 날씨전망을 통해 6월 중순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어 강수량이 평년(53~79㎜)보다 많겠다고 예보했다.

하순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고,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겠다고 전망했다. 강수량은 평년(106~149㎜)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6월 중순과 하순 기온은 평년(중순 22℃, 하순 23℃)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7월 상순엔 기온이 평년(24℃)보다 높아 본격 무더위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울 때가 있고, 강수량은 평년(103~153㎜)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타
존슨썬팅 제주점 썬팅클럽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제이마트 내)
● 네비게이션 수리, 대여, 보상판매
● 블랙박스 실감 HD영상, 500만 화소
● 열차단 썬팅 40%할인 예약필수
☎ 711-6544